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 시정 주요 정책 시작부터 끝 한 눈에 확인

# “정책 이력제 도입 시정 신뢰도 제고”

전주시의회 백영규(완산, 중화산·2동) 의원이 시정 주요 정책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이력제’를 제안했다.



백 의원은 21일 기획조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주요 정책의 시작과 결정, 그리고 변경에 따른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누구의 아이디어로 어느 부서에서 시작했는지, 예산 반영 상황,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 실제 과정 등을 종합적

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책 이력제가 도입된다면, 시민들이 사업추진과정과 역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업의 시작과 추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또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각 부서별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성과관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

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며 “전주시의 2016년도 부서별 행정성과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100대 핵심과제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나, 전라체계도 등이 없어 시정목표와 성과목표를 연계하기에 한계가 있고, 일선 부서에서 성과지표 설정 시 결과지표보다는 달성하기 쉽게 과정지표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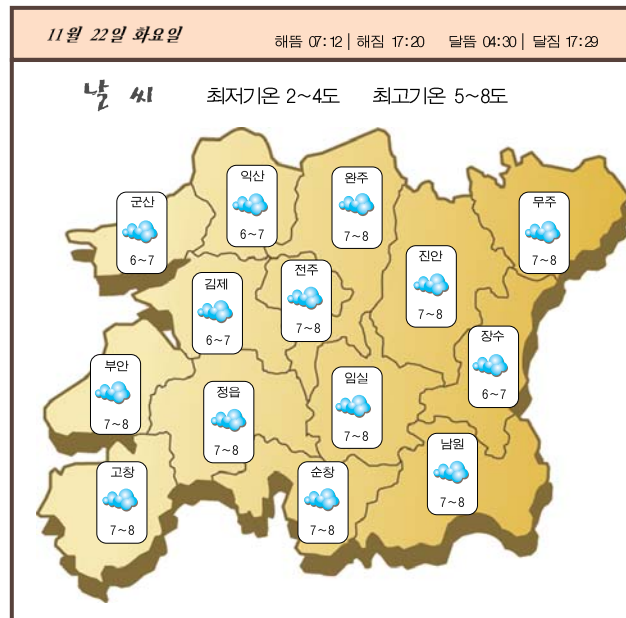
또한 백 의원은 “정부가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정성과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부서별 행정성과 결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려고 했다”며 성과평가 및 보상이 불공

평성을 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백 의원은 “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목표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가의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업무 위주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와 인력이 요구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사회복지사, 전국 최초로 복지카드 지급받는다

김승수 시장 공약사업 완료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이로써 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와 등하리 활동비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이어 복지카드를 지급기로 하면서 복지현장의 등잔 밑을 밝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모든 공약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21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전주를 만나다’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회장 서안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시는 복지카드를 처음 사용하게 된 사회복지사들에게 카드 사용방법과 복지카드 사용가능한 분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전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는 지난 7월부터 23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978명에게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전주시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마련하고, 전주시에 기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설명회

전주시는 21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지 전주시의회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전주를 만나다’ 행사를 가졌다. 전주·완주사회복지사협회(회장 서안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시는 복지카드를 처음 사용하게 된 사회복지사들에게 카드 사용방법과 복지카드 사용가능한 분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인 지난 2014년 10월부터 4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5명의 보수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실화했다.

이는 민선6기 전주시의 공약실천 1호 사업으로 기록됐고, 그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98%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해 온 전주시 사회복지

사들은 이때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0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시는 또 지난해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542명을 대상으로 자질향상과 자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의 50%를 지원한데 이어 올 1월부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연구 활동을 통한 복지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하리 5개 팀에 활동비를 지급하기

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자기희생과 사명감 하나로 일해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더 이상 자기소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 중국 칭다오 QJII-전북대병원 설립 추진 청도계기석화집단유한공사와 MOU 체결

전북대학교병원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위해 중국기업과 합작해 중국 현지에 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될 경우 중국 현지 병원을 외국인 환자유치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청도계기석화집단유한공사와 (가칭)QJII-전북대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청도계기석화집단유한공사(QJII Petro-Chemical Group, 이하 QJII Group)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위치한 석유화학제품 관련 그룹으로 연매출액이 15억 위안(한화 2500억원)에 이르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QJII Group이 지난 8월 전북대학교를 통해 현지합작병원 설립 의향을 타진해오면서 병원 차원에서 의료 해외진출 모색을 위한 두 차례의 중국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진전됐다.

이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QJII Group의 주요 관리들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병원의 최첨단 선진 의료시설과 의료진 등을 직접 면담 한 후 본격적인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칭다오 지역의 건강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QJII-전북대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중국은 새로운 의료산업의 블루오션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서해안과 새만금이라는 천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전북대병원이야말로 중국 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의 전방이 매우 밝은 곳”이라며 “현지 병원 설립과 군산전북대병원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외국인 환자 치료의 거점병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